

국제 물과학 · 공학회의(ICHE-2000)개최를 준비하면서

우효섭, 최계운 (국제 물과학 · 공학회의(ICHE-2000) 사무국장)

서기 2000년은 수자원 관련 연구자나 기술자들에
게 아주 뜻깊은 한해가 될 것 같다. 그 동안 주로 국내
학회 활동을 위주로 학문발전이나 연구결과등의 교류
를 이루어 왔던 우리 학회에서는 2000년 8월 22일
~24일(예정)에 제 4회 국제 물과학 · 공학회의
(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sience and
Engineering, ICHE)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, 폭넓은
국제교류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. 금년으로 3회째 국
제학술회의를 갖는 국제 물과학 · 공학회의는 1993년
미국 워싱턴(Washington)에서 제 1차 국제학회를
개최한 이래 2년 후인 1995년 중국의 북경(Beijing)
에서 제 2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있다. 금년에는 8월
31일부터 9월 3일까지 독일 베를린(Berlin) 중심부
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
Cottbus에서 지표수 및 지하수 흐름, 하구둑, 해안 및
연안의 발달, 하천의 동역학, 저수지관리, 침식 및 유
사이동, 오염물 이동 및 확산, 자료수집 및 해석, 수치
해석, 매개변수 추정 및 적용,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
델구성,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 11개 분야
에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.

현재 Wang교수(미국 미시시피대학), Kawahara

교수(일본 중앙대학) 및 Holz교수(독일 Cottbus대
학)등 3인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물과
학 · 공학회의는 물과학 및 공학모델의 향상을 통하여
환경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물리학에 관
한 이해 증진, 모델링과 정보매체기술등의 공학적 적
용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매 학회 개최시마
다 논문 초록(Proceeding)을 발행하여 관련 연구자
및 기술자 상호간 지식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
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.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 국제
학회의 국내 개최를 통하여 학문의 국제화를 꾀하고
연구의 폭을 넓힐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, 성공적인 국
제학회개최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국내 조직위원
회를 구성하고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중에 있다. 이밖
에 국제조직위원회(IOC), 국제과학자문위원회
(ISAC), 국내 자문위원단, 모금위원회등은 현재 조직
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제 물과학 · 공학회의의 협조아
래 구성중에 있다. 특히, 우리학회는 금년 9월초
Cottbus회의에서 서울 대회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
예정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각도의 노
력을 기울이고 있다. 따라서,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
참여를 기대해 본다. ●

ICHE-2000 국내 조직위원회 구성

